

## 민족국가형성과 국가상징: 우즈베크에서의 역사의 복원 또는 재창조

정근식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소련 체제 붕괴이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정치경제적 개혁과 아울러 새로운 국가적 상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정통성의 원천을 찾아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크도 민족국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고 있다. 국기와 국가, 국가 문장 등을 바꾸고, 도시나 농촌에서의 각종 기념물이나 상징, 경관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이 조성한다. 이런 과정은 과거의 전통을 '찾아내는 작업'과 러시아 지배의 흔적을 '벗겨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 또한 우즈베크이 과거와 같이 다민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현재의 권력집단이 과거의 소련체제하에서의 지배집단이었다는 점 등이 상징정치에도 반영된다.

이런 전통의 창출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종 기념적 상징물의 내용은 러시아적인 것으로부터 우즈베크적인 것으로 교체되지만, 그들의 공간적 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징정치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현 권력담당집단의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지닌 것으로, 전자는 상당정도로 수행되었지만, 후자는 내적인 긴장 요소를 안고 있다.

### 1. 머리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한 이후, 이들 독립국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연대방식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국가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적 제도와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며, 새로운 국가적 상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정통성의 원천을 찾아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로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차이가 있듯이<sup>1)</sup> 새로운 민족국가적 전통의 창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중앙아시아는 오래 전에 이슬람화된 지역으로, 흔히 우즈베크 민족은 16세기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해진다 (최한우, 1997; 송재우, 1996).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민족국가를 구성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185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정복 대상이 되어 부분적

1) 그것은 대체로 우즈베크 모델과 카자흐 모델로 대비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급속한 개방모델로 독립초기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외체가 누적되면서 점차 카자흐 모델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우즈베크은 <기존의 정치체제에 입각한 완만한 경제변동 모델>을 형성하였다. 우즈베크 모델은 독립 6-7년이 지나면서 중앙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상황에 있다.

인 자치와 종속상태에 놓여 있다가 1925년에 완전한 소련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중앙아시아는 크게 보면 세가지 인종적 카드, 즉 터어키적 요소, 페르샤적 요소나 이슬람 종교, 그리고 ‘아시아성’을 갖고 있다 (Olcott, 1994: 216). 거기에 소련치하에서 형성된 러시아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민족적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의 전통의 창출은 ‘찾아내는 작업’과 ‘벗겨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통의 창출을 논의할 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쟁점은 의도적 계획성과 자생적 성장의 양면성의 문제이다. 창출은 과거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었던 것을 날조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전통이 새롭게 창출될 때는 기존의 전통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것과 지속불가능한 것의 구별이 행해지고, 또한 특정 계층과 보다 광범위한 민족집단을 구별하는 의례가 나타난다 (Hobsbawm, 1995: 403-407). 전통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패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홉스봄(1995)은 1870년대부터 제1차 대전 이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에서 전통이 대량으로 창출되었다(invented)고 보았다. 이 시기는 대중정치와 출현에 따라 지배자와 중간계층들이 사회조직과 구조를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을 개발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다. 전통의 창출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행되었다.<sup>2)</sup> 이것은 새로운 국가휴일제, 의례, 영웅이나 상징들<sup>3)</sup>과 이에 대한 대중적 호응이 결합됨으로써 제도화된다.

이 글은 우즈베크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 민족국가적 상징들이 어떻게 창출되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우즈베크의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여기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민족사’를 역사의 복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창조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 뚜렷한 논의가 없었다. 1990년대 독립이후 진행되는 전통의 창출은 소련체제로 편입되기 이전인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진행되었던 자디드 운동과 같은 ‘과거의 유산’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새로운 민족적 전통의 창출 움직임이 정치적 독립의 산물인가, 아니면 독립이전에 최소한의 싹이라도 있었던 것인가도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전통의 창출이 항상 과거의 유산들이 현재의 정치지형을 통해 걸러지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이 여기에 추가된다는 사실로부터 온다. 원래 전통의 창출은 현재적인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를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집단의 성격을 파악하

2)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보다 목적의식적이라는 것이며,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이다.

3) 프랑스 3공화국에서 전통의 개발은 초등교육, 공공의례, 공공적 기념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아르미니우스 기념비, 니더발트 기념비, 라이프찌히 기념비 등이 이런 전통의 재창조에서 의미있는 시도들이었다.

는 것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통의 창출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첫째, 역사적 재해석의 과정과 국가적 상징의 변화, 둘째, 수도인 타시켄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적 경관과 인근 폴호즈의 농촌적 경관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대민족에 관하여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1991)은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로 규정하면서, 민족적 상징물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sup>4)</sup> 국가적 상징은 국기, 국가, 공식 문장 등으로 구성된다. 러시아의 경우 공식적 국가, 국기, 국가문장 제정을 둘러싸고 집단간 갈등이 커서 1998년까지도 과거 제정 러시아의 국가상징을 사용하고 있다.<sup>5)</sup> 이 글을 위한 자료는 1995년의 현지조사와 1998년의 2차 현지조사, 특히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sup>6)</sup>

## II. 국가적 상징의 변화

### 1. 역사의 재해석과 전통창출의 맥락

민족국가의 형성은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은 우즈벡 국가가 소비에트하의 우즈벡의 역사를 어떻게 규정해 가는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나 정치집단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다. 우즈벡 대통령 카리모프는 1996년 국회 연설에서 독립이전의 우즈벡의 사회체제를 전체주의적 체제로 표현하고, 때때로 식민지정권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우즈벡 독립후의 개혁의 성과를 사회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역, 대외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언급했는데,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민주적 변화를 첫째, 민족문화와 도덕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창출했다는 것, 둘째, 사회적 정의의 원칙들이 확립되고 있다는 것, 셋째, 사회의 기초인 가족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

4) 앤더슨은 18세기의 유럽에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재현 수단으로써 소설과 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 상상된 공동체의 범위는 교환과 통신이 이루어지는 통합영역이었다 (1995: 53). 그녀는 식민지경험을 가진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형성에서 대중매체, 교육제도와 행정제도를 강조하다가 이들 요인 외에 국세조사, 지도, 박물관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인식하였다 (1995, 183).

5) 1993년의 헌법에 국가상징물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새로운 국가상징물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1월에 열린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러시아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 등 보수파는 소련시대와 관련이 있는 상징물을 국가상징으로 선호하는 반면,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8개 자치주 및 지방정부들은 제정 러시아 시대를 극복하고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의 경우 미하일 글린카의 곡이 가사가 없는데다가 멜로디가 어렵다는 불평이 대단해 공식 국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6) 국가상징에 관한 주요 면담자는 유가이교수(타시켄트 사범대)와 김성(우즈벡 사회과학원) 원사이다.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족문화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대중들의 역사적 기억을 개방시키고, 정신적 계몽을 하며, 아울러 민족적 긍지와 모국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였다. 우즈벡 독립이 성취한 것 중의 하나는 우즈벡의 위대한 선조들, 알 베틀니, 이븐 시나, 무하마드 호레즈미, 아흐마드 파르고니, 알 부호리, 아트 테르미지, 아미르 티무르, 미르조 울루그벡, 호자 바쿠딘 나샤반드, 알리셰 나보이, 바부르 미르조 등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사, 즉 19세기말과 20세기초, 그리고 특히 1920-30년대의 우즈벡의 위대한 자손들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식민지적, 이데올로기화되고 전 체주의적인 정권아래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부정된 사람들이었다.

민족적 관습과 전통, 영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의 재생, 종교와 조상에 대한 믿음의 재생, 성지와 성소, 즉 모스크와 마드라사, 다른 역사적 기념물의 회복 등이 이루어졌다. 1996년 아미르 티무르 탄생 660주년의 기념, 1997년의 세계최고의 도시들인 부하라와 히바의 건설 2500주년 기념에 유네스코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재능을 숭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할 증거이다 (Karimov, 1996: 52-53).”

카리모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인물들은 새로운 국가형성과정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제공해주는 인물들이다.

카리모프의 언급에서처럼 소비에트 하의 우즈벡의 사회체제와 역사를 식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우즈벡의 민족주의의 공통적 기반이다. 이들은 러시아 지배의 식민지적 유산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up>7)</sup> 그러나 이와 다른 시각, 즉 러시아 지배하에서 우즈벡이 비로소 근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게 남아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측 입장이지만, 우즈벡 내의 소수민족 또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소련체제의 장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우즈벡은 독립 후 곧바로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동방대학이나 타시켄트 대학 등의 역사학과, 동방역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뿌리찾기의 결실이 아미르 티무르와 나보이였다. 물론 이들은 독립이전의 우즈벡 공화국의 역사에서도 언급되기는 했지만, 독립이후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되었다. 티무르의 민족적 영웅화는 민족주의화라는 맥락에 놓여 있다. 우즈벡의 민족국가화는 방송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권위주의와 결부된다. 현재의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와 티무르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시간적으로 연속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이미지와 티무르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이미지 전환을 간접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의 사진이나 동정은 신문의 1면 상단에 주요 뉴스시간의 처음을 장식한다. 뉴스이전이나 후의 중간 중간에 티무르에 관련된 사진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삽입시킨다. 여기에는 티무르와 관련

7) 샤흐라니는 타시켄트에서 한 우즈벡인에게 러시아 지배하의 우즈벡체제에 관해 물었을 때, 그 우즈벡인은 과음, 돼지고기먹기, 무신론 등 4가지로 구성된 파괴적인 체제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쓰고 있다 (Shahrani, 1995: 282).

된 역사적 평가, 그의 리더십이나 용감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맥락은 인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이다. 티무르의 이상화는 우즈벱의 국내적 역사쓰기의 맥락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정립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다. 티무르에 대한 강조는 쉽게 '중앙아시아의 재건'이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우즈벱은 티무르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묶어 리드하려는 의도를 조심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티무르 탄생 660주년을 내세워 이루어진 티무르 동상제막식에서 잘 표현되었다. 이것은 사마르칸트의 외국어 대학 앞에 세워졌는데, 이 의례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7개국의 대통령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티무르의 우즈벱 민족화 작업에서 나타난 한 가지 문제는 그의 이미지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전쟁영웅으로서 불가피하게 전쟁 및 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또 다른 영웅이 필요했고, 이런 맥락에서 나보이가 국부로 선정되었다. 티무르와 나보이가 민족 정체성 형성에서 한 쌍의 켈레를 이루는 셈이다. 나보이는 17-18세기에 활동한 시인으로 혈통상으로는 우즈벱 민족인지 불분명하지만, 우즈벱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민족적 호소를 하는데 매우 적절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의 시는 아랍어로 쓰여져 있다.

카리모프가 언급한 것처럼 민족의 뿌리찾기는 실질적으로 우즈벱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특히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이슬람 확장기에 출현한 수학자 알 호레즈미, 인도 여행서를 쓴 알 베루니, 의학자 이븐 시나 등이 이런 문화적 민족주의의 주요 자원이 된다.

민족국가 형성에서 역사적 공통성의 상징화가 매우 중요하다. 다민족 국가에서의 정체성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족형성을 억압했던 과거는 부정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의 역사는 지워지고 있다.

우즈벱화의 정도는 지배언어와 지배종교의 지배성 강화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지배언어의 교체와 국어의 재규정, 그리고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정책은 민족 창출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즈벱에서 지배문자는 1920년대까지 아랍문자였다가 잠시 로마문자를 사용한 후 1940년대부터 키릴문자로 바뀌었다. 키릴문자의 사용은 중앙아시아와 터키의 투르크족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형성했고, 이들이 러시아의 문화권에 편입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송재우, 1996: 179). 독립 후 1998년에 이르러 다시 키릴문자로부터 로마문자로 바꾸는 조치가 행해졌다.

우즈벱어의 국어화와 이슬람의 국교화<sup>8)</sup>는 이런 정책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벱은 민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은 삼가고 있다.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우즈벡 내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소수 민족들이 가진 자원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근본적 민족주의나 근본적 회교주의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급진화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혈통적 단일성은 강조할 수 없다. 소수민족들에 대한 배타적, 억압적 정책은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붕괴된 경제체제의 복구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다양한 차이를 최대한 축소시키면서 동일한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민족화는 단지 혈통만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우즈벡공화국 초대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아쿰바바이의 동상은 그가 우즈벡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라졌다.

## 2. 국가적 상징과 집합적 기억

근대 민족국가형성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단위의 성립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國旗와 國歌(National Anthem), 그리고 국가적 문장(State Emblem)이다.

근대민족국가 형성에서 국기는 프랑스혁명의 삼색기 모델을 본받은 것이다 (홉스봄 외, 1995: 365). 국기숭배는 특히 미국에서 발전되었는데 이는 1880년대부터 초등교육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홉스봄, 1995: 379).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를 비롯한 위성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붉은 바탕에 낫과 망치를 새겨 넣은 적기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계열을 이루었다. 우즈벡기는 적기로 상단에 별이 그려져 있었다. 독립이 되면서 1991년 새로 만든 우즈벡 국기는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단은 파랑색으로 이것은 하늘색이며 평화를 애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상단 왼편에 초생달과 12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달은 이슬람을 상징하며, 별은 각각 12개의 주를 나타낸다. 중간부분은 흰색이며 이는 이슬람교도의 의복색을 상징한다. 하단은 녹색으로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초생달로 표시한다. 이처럼 초생달과 별로 이루어진 이슬람적 상징은 그 원형이 터키 국기에서 나타나며, 우즈벡 인근의 아제르바이잔이나 기타 투르크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계열을 이룬다. 국기의 상징에서 뚜렷한 이종은 카자흐스탄이다. 이것은 독수리와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와 태양은 우즈벡의 경우 국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문장에서 나타난다.

우즈벡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은 소비에트 시기에 도 있었다. 독립후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용이 바뀌었다. 맨 위에는 천상의 이슬람국가를 상징하는 초생달과 별을 감싸고 있는 팔각형의 별이 있다. 이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상징하고 있다 (Faizulaev, 1993: 33).

8) 문화로서의 이슬람과 종교로서의 이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슬람의 세속화와 관련된 것으로 라마단의 경우 대부분이 참여하나 종교적 이유에서 하는 경우는 이맘들과 일부 신자에만 한정된다.

문장의 왼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목화송이들이고, 오른쪽에는 밀 이삭이 장식되어 있다. 밀과 목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국가적 이상이 상징화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와 연속적인 것이다. 문장의 중앙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에는 일출의 산을 배경으로 쉼무르그(Semurg)라는 상징적 새가 조형되어 있다. 쉼무르그는 민족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상상의 새로, 언제나 날개를 양쪽으로 편 모습을 띠며 시선은 언제나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우즈벡의 민족적 신화에서 동쪽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동쪽은 해를 상징하고 해가 뜨면 눈이 녹으며, 눈이 녹으면 물이 많아지고, 물이 흐를 정도로 많아지면, 땅에 습기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이에 따라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막성 지역의 오아시스에서 물의 의미는 각별하다. 다른 하나는 해가 뜨면 꽃이 피고 이에 따라 사랑이 무르익으며,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다. 쉼무르그 뒤에는 산 위로 해가 뜨는 광경이 있다. 이 산은 천산이다. 천산은 우즈벡 민족의 발원지로 상징된다. 천산산맥의 한 봉우리가 침강이다. 여기로부터 내려오는 강이 시무다리야강과 치르치크강이다. 두 커다란 강 사이의 벌판, 즉 오아시스 농업이 가능했던 구역이 타시켄트주이다. 타시켄트의 원래 의미는 ‘두 강사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본다면, 국기에서는 범터어키계 이슬람이 표현되고 있고 문장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유사한 민족적 신화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기와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가상징이 국가이다. 국가는 1740년경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홉스봄 외, 1995: 365).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국가는 민족국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우즈벡의 경우 소비에트 치하에서도 국가는 존재했다. 과거의 국가는 1924년 무딸 블라노프가 작곡하고 가풀 굴람이라는 시인이 쓴 것이었는데, 독립후 곡은 그대로 두고 압둘라 아리포브라는 인민시인이 쓴 시를 199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 국가의 가사에는 우즈벡이 “햇빛 많은 자유나라, 행복과 구원의 나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상징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의 재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재해석된 역사는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산된다. 국가기념일이나 국립 묘지나 국립 박물관은 그런 공공적 역사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담당하는 제도들이다.

우즈벡은 독립 이후 기존의 메이데이나 10월혁명 기념일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휴일을 도입했다. 신년일(1.1), 국제 여성의 날(3.8), 나브루즈 국경일(Navruz, 3.21), 무슬림 휴일(Khait), 승리절(5.9), 무슬림 휴일(Kurban Khait), 독립기념일(9.1), 제헌절(12.8) 등이 그것이다. 이런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슬람적 휴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공적 기억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박물관의 변화이다. 그것은 기존의 박물관의 개편과 새로운 박물관 건축을 포함한다. 전자는 기존의 국립박물관의 핵심이었던 레닌

박물관<sup>9)</sup>이 역사박물관으로 바뀐 것으로 대표되며, 후자는 아미르 티무르박물관의 신축이 대표적이다. 박물관의 변화에는 명칭의 변화 뿐 아니라 전시물의 변화도 포함된다. 역사 박물관의 경우 첫째, 레닌 상이 현대 우즈벡 역사를 나타내는 대형 벽화로 대체되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련체제하의 우즈벡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10월 혁명기나 스탈린 치하에서 이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던 사람들이 전시되었다. 셋째, 사회주의자들 하더라도 2차대전기의 ‘조국방위전쟁’에서 활동한 우즈벡 출신의 장군 라히모프에 대한 전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넷째, 전시물은 민족적 혈통보다는 현재의 국가 영토 중심으로 구성된다.

독립 이전에도 우즈벡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박물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우즈벡 시인인 카푸르 굴랍을 기념하는 박물관과 나보이 진기작가 아이백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었다. 사마르칸트의 경우 시인이며 러시아 친선주의자였던 하미드 알림잔(-1843) 박물관이 있다. 그는 셰무르그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

유목적 전통을 가진 민족의 경우 역사기록이 별로 없다는 점이 박물관의 구성에 큰 애로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족 전통의 복원에서 구전적 역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집단 중심의 역사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특정 공간 중심의 역사가 불일치하고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집단중심의 역사를 추구하는 경우 영토를 둘러싼 국제간 긴장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민족전통을 재강출하는데 있어서 고고학적 발굴성고가 많이 이용된다. 이것은 그 고고학적 증거가 문화적인 경계와 조상의 개념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Dietler, 1994).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고학 자료들은 먼 과거와의 그럴듯한 연속성을 제시하는 최상의 상징적 자원이기 때문에 쟁탈의 주요 목표가 된다. 인종적 민족주의를 통한 민족전통 창출의 한 예로, 카자흐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황금 인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앙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발굴성고의 하나로, ‘화려했던 과거’를 ‘물질적’으로 증거해주는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 III. 경관과 기념물의 변화

#### 1. 도시경관

도시경관은 집단적 역사경험과 집단의 기억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 낸다. 광장이나 거리, 구역, 공원의 명칭,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동상이나 기념물 등에 권력과 집단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다. 이들 도시 중에서 수도는 대체로 의도적인 국가적

9) 구 소련하에서 대규모의 레닌 박물관은 모스크바와 타시켄트, 그리고 레닌의 출생지인 울리야노프스크 등 세곳에 있었다.



상징물이 가장 많이 집중, 집약되어 있다.

우즈벡에서 도시경관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도인 타시켄트는 다른 여타 도시들에 비하면 국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지방의 도시들은 지방색을 강하게 띠며 주민들의 민족적 구성도 상당히 다르다.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히바 등은 소비에트화 이전에 역사적으로 타시켄트와 동일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주민의 민족적 구성이 다르고<sup>10)</sup>, 또한 러시아인의 이주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변동의 차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즈벡의 대표적인 도시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전시장'으로 건설된 타시켄트이며, 이와 아울러 소련체제하에서 관광산업을 위해 보존하고 다듬은 이슬람적 도시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이 있다.<sup>11)</sup> 사마르칸트에는 티무르의 묘나 울루그벡의 천문대 유적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우즈벡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19세기 중후반에 이 투란 저지대로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도시들은 러시아 식민도시로 되었는데, 러시아인들은 초창기 침공시기에 이 도시들을 주로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 후 점차 면화수송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이해가 이들의 도시파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카스피해 횡단철도가 1880-1896년 기간에 건설되었고 변경작지가 면화재배지역으로 바뀌고 러시아 식민지 행정이 조직되었다. 이 때부터 도시는 식민지적 행정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에 중앙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첫째, 이슬람적 전통이 그대로 유지된 유형(부하라, 히바), 둘째, 이슬람적 구도시에 러시아식 신도시가 부가된 유형(타시켄트, 코칸드, 사마르칸트), 셋째, 러시아식으로 새롭게 형성된 유형(알마타, 악사바드)등으로 구분되었다 (Giese, 1979: 151).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기존의 원주민 거주지역과 구분되는 외곽지역에 식민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건설되었다.

타시켄트는 1899년 카스피해 횡단철도로 러시아와 연결되었고, 나아가 동북부지역이 면화생산지화되면서 이 지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수송의 중간거점이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타시켄트를 급속하게 변모시킨 두 계기이다. 도시정책의 영역에서 러시아 식민통치는 초기에 원주민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기존의 원주민의 관습을 훼손하지 않는 완만한 개혁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문에 이슬람적 도시가 급속한 변화를 겪지 않았고, 이

10) 사마르칸트의 경우 타지인이 55%, 우즈벡인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즈벡인이 오히려 소수이다.

11) 기세(Giese)는 우즈벡의 이슬람 도시들, 즉 부하라, 히바, 사마르칸트, 타시켄트 등의 역사와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부하라를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방 이슬람의 전형적인 도시로 규정하고, 그 구조적-기능적 요소들을, 금요 사원, 전통시장(바자르), 요새, 독특한 거주지구, 성벽 등 5가지로 지적하였다 (Giese, 1979: 146). 이런 요소들의 위치와 상호관계가 도시생활의 중요성과 기능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슬람적 도시와 러시아식 신도시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원주민과 러시아인들간의 엄격한 지역적 격리 및 병존 정책을 바꾸었다. 기존에 민족이나 언어, 친족적 기준에 의존하던 것이 직업, 수입,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점차 러시아인 거주지는 우월한 거주지역으로, 원주민 지구는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빈민주거지구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적 발전모델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전도시인 타시켄트에서 쉽게 발견된다. 1960년대 초부터 타시켄트의 구시가지는 점차 재개발지구가 되었다. 특히 1966년에 발생한 지진은 이 도시의 경관을 바꾸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sup>12)</sup> 지진으로 인한 파괴와 이후의 재건은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의 원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타시켄트의 도시경관은 외국인 관광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건된 이슬람적 전통도시들인 부하라와 히바와 다르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에 관광을 위해 대규모 이슬람 건물들이 보수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전통도시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이슬람적 요소들인 바자르가 쇠퇴하고 소련식 상업지구로 대체되었으며, 사원은 대규모의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대규모 건물을 제외하고는 허물어졌다. 이전의 상징물들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거나 파괴되었다. 전통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보존할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이 될만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제외하고는 구시가지는 사라졌다. 이러 과정을 타시켄트가 잘 보여준다. 이슬람 사원이나 러시아 정교 교회도 사라지거나 최소한의 자취만 남았다. 대신 맑스-레닌주의적 표현물, 특히 레닌 초상이 곳곳에 걸렸고, 기념조각이나 동상이 사진과 함께 벽이나 깃발, 카펫트 등에 새겨졌다.

이슬람적 도시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요소들이 파괴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도시계획과 설계의 새로운 원칙들이다. 그것은 국가와 당의 권력을 표현하고, 사회변혁 추구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가시적 표현물이 도시중심의 힘을 과시하는 지점에 자리잡은 행정부 건물 뿐 아니라 대규모 중앙광장, 넓은 중심시가, 행진이나 공공 축제를 위한 전망대 또는 도로, 당의 목표와 문화적 필요에 의한 대표적 건물 등이다 (Giese, 1979: 157). 구시가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철도와 철도역사,<sup>13)</sup> 그리고 화물운송로의 건설이었다.

문화휴식공원도 사회주의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적 기능적 요소에 속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당을 위한 시위와 선전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영어문화권에서 레저와 레크레이션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소련적 사고에서 레저는 문화적 활동으로, 레크레이션은 신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레닌이 강조한대로 사회주의 도시는 양자 모두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12) 1902년 안디잔, 1948년 악사바드 등도 큰 지진을 겪었다.

13) 1905년 타시켄트 역 건물에 최초의 도시시계가 부착되었다. 그 이전까지 타시켄트에서는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정오에 포를 사격했다. 1947년 전승을 기념하여 탑을 세우고 음악시계를 만들었다.

을 충실히 따랐다 (Shaw, 1979: 122). 중소기업의 도시조차 오페라 및 발레 극장, 연주홀, 연극극장, 어린이극장, 박물관과 화랑, 각종 박물관(지방사, 문화, 자연사)들이 갖추어져 있다. 문화궁전 및 도서관등도 마찬가지이다.

프렌취와 안 해밀튼은 ‘사회주의적 도시’라는 개념이 가능한가를 질문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뿐 아니라<sup>14)</sup>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French & Ian Hamilton, 1979: 3). 도시의 구조나 경관은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원리가 작용하는 시점의 해당 도시의 역사적 유산이 중요하다.<sup>15)</sup> 사회주의적 도시이론이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련에서 1차 5개년 계획기간(1928-1932)중에 두 가지 계획, 즉 문화적 활동,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계획(planirovaniya)이 출현했고, 뒤이어 물리적 계획(planirovka)이 출현했다. 종합적 계획은 1960년대에 출현했다.

사회주의 도시들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달라서 다른 모습을 갖지만, 공통점도 많다.<sup>16)</sup> 특히 동시대적 공통성이 두드러지는데, 스탈린 시대의 육중한 고층건물, 1960년대의 고층 블록, 1970년대의 고층 탑 등이 그런 예이다. 아파트단지는 블록별로 획일적이며, 영웅 상, 붉은 바탕에 흰 글씨의 슬로건, 중앙광장, 신문판매대(Kiosk), 음료 판매대 등 거리 장식도 획일적이다. 그러나 민족문화와 전통도 나름대로 표현된다. 타시

14) 라이너와 윌슨은 소련과 미국의 도시형태를 비교하여 두 가지의 공통성과 한가지의 차이를 밝혔다. 서비스와 상업의 조직화방식, 그리고 거주밀집지구이고, 중요한 차이는 도시중심에서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중심공공지구가 상업 및 사무실 공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소련에서는 정부, 문화적 교육적 활동, 여흥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는 공공 활동지구로 되어 있다 (Reiner and Wilson, 1979: 67).

15) 소련의 도시계획 원칙은 1928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수정되었다.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은 모든 도시가 국가적 정주 연결망에 적합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즉 도시건설의 기본원리는 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정주의 연결망을 완전하게 하고, 질 높은 생활조건을 확립하며, 효과적인 보존과 환경적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Belousov, 1976: 10). 이런 사회주의적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소련의 계획가들이 채택한 기본개념을 배터(Bater, 1977)는 도시의 최적규모, 복리의 균등성, 직장출근의 수고 최소화 및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이동, 도시토지 이용형태에 따른 공간적 격리 등으로 정리했다. 프렌취는 여기에 도시공간이용은 서구처럼 지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고려와 최적의 기능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추가하였다 (1979: 74).

16) 사회주의 도시(Sotsgorod)를 개념화한 초창기 이론가가 밀류틴으로 그는 선형(linear)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모델은 거주공간과 산업지구가 녹색 위생지대로 구분되면서 평행적으로 배치되는 틀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파괴되었지만, 60km에 달하는 불가강 양안에 건설된 볼고그라드는 이런 선형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1932년 라도프스키가 모스크바의 도시확장에서 평행벨트를 변형한 ‘trident-like’ 모형을 제시하였다. U자형 중심부가 있고 이 안 가운데에 서비스지구, 그것의 양쪽으로 주거지구, 그 밖으로 산업지구가 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초기 이상적 도시형태는 공동적 삶을 사회의 기초로 바라본 스투루밀린(1961)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미시주거지구, 최적도시규모, 도시간 연결망 등이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들이 되었다.

켄트 레닌 박물관의 문양(filigree)도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민족 문화적 표현 및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를 검증해보려는 시도들이다 (French & Ian Hamilton, 1979: 15).

소비에트적 정치문화의 특징중의 하나는 역사적 모범인물을 따르는 전통이 매우 강했다. 타시켄트의 구역이나 주요 도로의 경우 중요 인물이름을 부여한다. 소련치하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중심에 '사회주의의 승리와 인민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환으로 각 공화국의 수도 중심부에 광장을 만들고 이 광장에 정부청사를 위치시켰다. 우즈벡의 경우 이 광장의 명칭은 '붉은 광장'이라고 하고, 동시에 레닌 동상을 세워 러시아 10월 혁명을 기념하도록 하였다. 이 '붉은 광장'은 10월 혁명 60주년을 맞은 1977년에 확장되어 '레닌 광장'이라고 개칭하였고, 정부청사를 신축했으며, 레닌 동상도 18m로 확대하였다. 원래 이 광장은 1888년에 열병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 중심거리는 싸보르나야 거리로 여기에 대성당과 투르키스탄 총독의 관저와 관리들의 집들이 소재하고 있었다.

타시켄트의 주요 거리는 레닌 거리, 앵겔스 거리, 푸쉬킨 거리, 나보이 거리가 있었다. 독립 후 레닌 거리는 샤라프 라시도프 거리로 바뀌었다. 라시도프는 작가이며 우즈벡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었고, 공산당 제1비서를 역임했으며, 브레즈네프 시절 우즈벡의 실권자였다. 그는 1982년 사망했다. 그의 이름이 타시켄트 중심 거리의 명칭이 된 것은 현 우즈벡 대통령 카리모프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앵겔스 거리는 아미르 티무르 거리로 바뀌었다. 푸쉬킨 거리와 나보이 거리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의 명칭이 인물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 대체로 러시아 혁명과 관련이 있는 사례들은 교체의 대상이 되었지만, 설사 러시아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문화 관련 인물을 따른 광장이나 거리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래 이 푸쉬킨 거리는 타시켄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70년에 조성되었다가, 1899년 푸쉬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붙였다.

공간구조외에 기념물은 보다 직접적으로 집합적 정체성에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 러시아어로 기념물은 모뉴먼트(동상), 파메트니크(기억한다), 스타투야(한몸) 등 세 가지 의미가 통일되어 있다. 소비에트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념물은 레닌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레닌은 여러 유형의 기념물로 만들어져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 레닌 동상은 어느 도시나 주, 구역, 농장의 중심부에 만들어졌다.<sup>17)</sup> 레닌 동상은 1924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936년부터 레닌 동상과 함께 스탈린 동상이 세워졌다.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이 진행되면서 스탈린 동상은 철거되었다. 러시아 혁명 60주년 기념은 구 소련 전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 도시경관 및 기념물의 대대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17) 타시켄트 시내에는 레닌 관련 기념물로 레닌 광장, 레닌 동상 외에 레닌 박물관이 있었으나 이 박물관은 역사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박물관 현관입구에 있던 레닌 상도 철거되었다.

1991년 독립 후 이런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광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그 명칭이 변화되었다. 우즈벡의 경우 이 광장은 독립광장(무스타 길릭)으로 바뀌었고 레닌 동상은 철거되고 대신 그 자리에 독립기념탑을 세웠다. 독립 기념탑은 기존의 레닌 동상이 있던 자리에 세웠는데, 지구의에 우즈벡 영토를 새겨 넣은 것이다. 아울러 탑대에 우즈벡 국기를 새겨 넣었다. 광장의 핵심구성요소인 기존의 정부 청사는 도서관 및 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타시켄트에는 레닌동상 이외에 푸쉬킨, 고리끼, 고골리 동상이 있었다. 기존에 있던 마르크스 흉상과 엥겔스 동상은 1991년에 철거되었고, 이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구역이나 농장은 개칭되었다. 소련치하에서 특히 푸쉬킨과 고리끼의 동상이 많았는데, 특히 고리끼는 초대 소비에트 작가동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동상이 많은 반면, 고골리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동상이 드물게 세워졌다. 독립 후 푸쉬킨 동상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고리끼 동상은 1995년 대통령거리로부터 인적이 드문 세계언어대학 앞으로 이전되었다. 고골리 동상은 원래 아동백화점 뒤에 있었으나 1993년 철거되었으며, 1998년 현재 기념탑의 탑신만 세우고 흉상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우즈벡 작가의 흉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1956년 스탈린 동상이 철거되고 이듬해 여기에 마르크스 동상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1991년 철거되었다. 1996년 여기에 아미르 티무르 동상이 세워졌다. 독립 후 새로 신축된 동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1995년 세워진 알리셰르 나보이 동상이다. 이외에 우즈벡의 전설적 천문학자인 울루그벡의 기념 표시판이 시내에 세워졌다.

동상과 함께 거리나 구역의 명칭도 바뀐다. 최초의 우즈벡 민족 출신 소련군 장군이던 1941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영웅칭호를 받은 사빌 라히모프의 구역이 생기고 그의 동상이 1992년 세워졌다. 야크말 이크라모프 구역 사무소 앞에는 이크라모프의 동상이 1995년에 세워졌다. 그는 우즈벡공산당 제1서기로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는 10월 혁명 후 최초의 우즈벡주의자로 평가되며 이 때문에 독립 후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

상징성이 큰 공공시설의 하나로 극장이 있다. 타시켄트의 중심 극장은 나보이 극장이다.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일본군 포로들이 타시켄트로 압송되어 약 2년간 포로로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타시켄트의 도시건설, 즉 나보이 극장과 시계탑(쿠란드) 건설에 동원되었다. 나보이 극장의 뒷편에 이 때 희생된 일본군 포로의 위령탑이 있으며, 근래에 일본인 관광객들의 참배장소가 되었다. 나보이 극장이외에 특기할만한 극장 중의 하나가 가가린 극장이다. 가가린은 소련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1960년대에 소련이 미국에 비해 과학기술이 앞섰다는 사회주의적 성취감을 상징했던 인물이다. 가가린 명칭의 극장과 기념 동상은 독립 후에도 철거되지 않았다.

## 2. 콜호즈 상징의 변화

민족국가형성에서의 상징정치는 국가수준과 도시 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관철된다. 소련의 농촌계획에서 농업도시(agrogorod)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적 정주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비록 그것의 이상적 규모는 변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서도 기능의 합리적 계획적 공간적 질서화가 작용했다. 산업과 거주는 물리적으로 녹지대에 의해 격리되고, 출근거리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서비스편의시설은 거주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삶의 이상, 시간과 노력의 최소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물질적, 문화적, 복지적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경험속에서 농촌 콜호즈는 국가적 상징의 전시장이었다. 우즈베크에는 1,800-2,000개의 콜호즈가 있었는데, 많은 콜호즈는 기존의 농촌마을을 재조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콜호즈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새로 만든 것이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농촌 콜호즈의 발전상은 소비에트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원이었다. 따라서 콜호즈의 명칭과 함께 콜호즈의 공간적 배치와 주요 건물들의 벽면, 그리고 실내 벽면들은 모두 정치적 선전의 장소였다. 공통적으로 콜호즈의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치와 건물들에 이런 내용들이 각인되어 있다.

독립후의 콜호즈의 변화는 콜호즈들의 명칭의 변화와 경관 및 장식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콜호즈 명칭이 대부분 변화했는데, 거기에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화한 것과, 콜호즈 자체가 다른 형태의 경제단위로 바뀐 것이 포함된다. 개별 명칭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하나는 소비에트나 사회주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명칭이 사라지고 독립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새로이 사용되며, 둘째는 러시아어 이름이 우즈베크어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sup>18)</sup> 한인 콜호즈의 경우 관행적으로 연해주에서 갖고 있던 이름도 기억 속에 있으므로 세 가지 명칭이 있는 셈이다. 다른 한가지 차원은 콜호즈 자체가 코포라치야등과 같은 다른 이름의 경제조직이나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김필동, 1996).

콜호즈는 도시경관과 함께 사회전체의 정치문화를 드러내주는 일종의 게시판이기도 하다. 콜호즈에는 각종 형태의 정치적 구호나 경제적 목표들이 장식되어 있다. 그것들은 특히 콜호즈의 입구, 그리고 사무소 앞 부근의 공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무소 건물내 현관이나 복도도 중요한 장소였다.

각 콜호즈의 입구에는 콜호즈를 상징하는 조각물이 세워져 있었으나 많은 경우 철거되었다. 이것은 주로 레닌이나 마르크스와 관계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대로 유지되는 상징물들은 주로 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것들이다.<sup>19)</sup>

18) 그 한 예로 '노바야 지진' 콜호즈는 레닌 콜호즈로 바뀌었다가 독립 후 명칭이 우즈베크어인 '양기하요트'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은 '노바야 지진'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콜호즈 사무소 앞에는 광장이 있고 한쪽 편에 역대 콜호즈 위원장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독립 후 철거된 곳이 많다. 철거된 경우 새로운 장식물로 대체되거나 방치되어 있다. 파괴된 상징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콜호즈가 농촌 경제의 악화로 1995년 봄부터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콜호즈 사무소의 실내 벽면에는 근래의 생산 목표량과 생산량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규모가 큰 경우 대통령 사진과 위원장 사진이나 우즈벡 그림이 걸려 있지만, 규모가 작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사진이 없다.

#### IV. 맺음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전통의 창출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은 오랫동안 아랍적 이슬람주의, 범투르크주의, 그리고 러시아 패권주의라는 세가지 정치문화가 각축을 벌이던 지역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민족국가’의 수립이 지연되었고, 그만큼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우즈벡 민족은 약간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주변 민족들은 유목적 생활로부터 정착적 생활로의 전환의 역사가 짧다. 셋째, 소비에트시기에 중앙아시아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5개 공화국으로 분할되었다. 이 시기의 국가적 경계는 각 민족들의 생활영역이나 점유공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의 ‘인민’은 언어나 종족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적이고 영역적인 것이었다 (Szporluk, 1994: 15). 넷째, 과거의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민족 국가이다. 우즈벡은 적어도 12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8개의 언어가 교육되고 있다. 다민족 국가에서의 민족사 서술은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섯째,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60년 이상의 세계사회주의를 표방한 체제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요소가 많이 변질되었다.

우즈벡화 경향에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가설적으로 종교나 민족적 구성비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즈벡민족의 밀집지역이나 종교적 측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지역이 민족주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우즈벡 민족의 구성비는 동부 안디잔지역에서 높은 반면, 이슬람적 전통문화는 남서부지역에서 더 많이 남아 있고, 이 지역이 아랍세계와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sup>20)</sup> 그러나 현재까지 우즈벡화의 중심-주변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우즈벡화가 위로부터의 권력에 의한다면 그것은

19) 따샤울 콜호즈는 과거의 명칭이 레닌그라드였는데 콜호즈 입구의 장식물은 파괴되어 있는데 비해 신영동 콜호즈는 면화가 곡물로 장식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20) 우즈벡 남동부의 페르가나 분지와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이슬람 이념을 표방하는 반정부 시위가 1989-1992년 사이에 계속되었다.

‘통제된 우즈베크화’이며, 이것은 수도권 지역이 중심부가 될 것이다. 우즈베크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지역에서 우즈베크화가 진전되는 이유는 대항상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다.

1991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민족국가 형성과 상징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민족적 전통의 복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상대적이다. 민족국가 형성과정은 우즈베크 민족에게는 전통의 복원이지만, 우즈베크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통의 창조로 보이기 때문에 전통 창출 담당자들은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의 파괴와 건설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조치들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도시적 상징물의 교체도 동시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족적 전통의 창출은 집단의 역사적 기원과 계열을 찾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현재의 영토적 영역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의 유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문학적 전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목으로부터 정착으로의 전환이 느린 사례일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전통의 창출은 지식인 사회에서 진행되지만, 최종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나 권력블럭에 의해 마련된다. 중앙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독립은 아래로부터의 민족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독립국가연합의 형성과정은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독립의 부산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독립후의 중요한 과제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현 권력담당집단의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자는 상당정도로 수행되었지만, 현재의 권력담당집단의 민족적 정통성의 확립문제는 충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이전의 우즈베크로부터 독립이후의 우즈베크로의 변화를 국가사회주의로부터 민족적 권위주의로의 이행이라고 부르는 것(Kulchik, Fadin & Sergeev, 1996: 27)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역사적 전통의 창출의 길을 밟는 경우 지식인의 교체는 최소화된다. 바로 이런 정치권력 및 지식인 집단의 성격 때문에 새로운 전통의 창출은 내부적 딜레마에 부딪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배층이 구 소련하의 우즈베크의 지배층이었고, 우즈베크 공산당의 상층이었다는 데서 온다.<sup>21)</sup> 또한 전통의 창출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지식인이기보다는 과거의 소비에트체제하에서 이념 창출을 담당했던 집단이다. 따라서 전통의 창출에서 ‘찾아내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벗겨내는 작업’ 즉 상상력의 탈식민화(Pieterse & Parekh, 1995)는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어

21) 1987년 우즈베크 공산당 당원 중 53명을 종교조직과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당에서 축출했으며(송재우, 1996: 176), 1988년에 결성된 민주화 단체 ‘비틀락’도 1992년에 불법화했다. 이런 사건들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렵게 된다. 더 어려운 문제는 우즈벡사회의 상층부일수록 러시아화가 많이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우즈벡어를 상실하고 러시아어만을 구사한다. 여전히 러시아적인 요소가 고급문화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상징물의 교체과정의 특징은 사회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우즈벡 민족사에서 영웅들로 교체되고 있지만, 그것의 형식이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상징적 기념물이 있던 자리에 내용을 달리하는 상징물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새로운 상징물이 새로운 공간에 설치되고 있다. 권력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국가형성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창출과 상징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인물의 정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반면 장소의 정치는 비교적 지속적이라는 사실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필동. 1996. 「구소련 해체후 중앙아시아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민생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8. 문학과지성사.
- 박명규. 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8. 문학과지성사.
- 송재우. 1996. 「중앙아시아의 종교와 민족주의」. 임영상-황영삼 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외대 출판부.
- 최한우. 1996. 「구소련 해체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8. 문학과지성사.
- 최한우. 1997.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 Ajay Patnaik. 1996. *Central Asia, between modernity & tradition*.
- Akiner, Shirin. 1997. *Central Asia : Conflict or stabilizing and development*.
- Allworth, E., ed. 1994. *Central Asia-130 Years of Russian Dominance. A Historical Overview*. Duke University Press.
- Allworth, E. 1996. *Central Asia Publishing and the rise of nationalism*.
- Anderson, J. 1997.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entral Asi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Verso* (최석영 역. 1995. 『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서경문화사).
- Armonk, N.Y. 1994. *Central Asia Red*.
- Dietler, M. 1994. "Our Ancestors the Gauls: Archaeology, Ethnic Nationalism, and the Manipulation of Celtic Identity in Modern Europe." *American Anthropologist* 96-3.
- Faizulaev. 1993. *Independent Uzbekistan Today*. Baina-Milal External Economic Association.

- French R. A. and Ian Hamilton, F. E. 1979. "Is there a Socialist City." French & Ian Hamilton, eds. *The Socialist City-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John Wiley & Sons.
- Fuller, G. E. 1992. *Central Asia: the new geopolitics*.
- Gleason, G. 1997. *The Central Asia states: discovering independence*. Westview Press.
- Giese, E. 1979. "Transformation of Islamic Cities in Soviet Middle Asia into Socialist Cities." French & Ian Hamilton, eds. *The Socialist City-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John Wiley & Sons.
- Hamer, J. H. 1994. "Identity, Process and Reinterpretation: The Past Made Present and the Present Made Past." *Anthropos* 89.
- Hobsbaw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 Hopkirk, P. 1994. *The Great Game*. NY: Kodansha International.
- Karimov, I. 1996. *The Most Important Tasks of Intensification of Democratic Reforms at the Present Stage*. "Uzbekiston".
- \_\_\_\_\_. 1997.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21th Century*. "Uzbekiston".
- Khazanov. 1984. (김호동 역. 1990). 『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 Kulchik, Y. & Fadin & Sergeev. 1996. *Central Asia after the Empire* Pluto Press.
- Olcott, M. B. 1994. "Nation-building and Ethnicity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New Central Asian States." in Szporluk, R., ed. *National Identity and Ethnicit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Y: Sharpe.
- Pieterse, J. N. & Parekh, B., eds. 1995. *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 Culture, Knowledge, and Power*. Zed Books Ltd.
- Reiner, T. A. and Wilson, R. H. 1979. "Planning and Decision-Making in the Soviet City: Rent, Land, and Urban Form." French & Ian Hamilton, eds. *The Socialist City-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John Wiley & Sons.
- Shahrani, M. N. 1995. "Islam and the Political Culture of 'Scientific Atheism' in Post-Soviet Central Asia." M. Bourdeaux, ed. *The Politics of Religion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Y: Sharpe.
- Shaw, D. J. B. 1979. "Recreation and the Soviet City." French & Ian Hamilton, eds. *The Socialist City-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John Wiley & Sons.
- Szporluk, R., ed. 1994. *National Identity and Ethnicit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Y: Sharpe.
- Tolstoy, V. Bibikova, I. & Cooke, C., eds. 1990. *Street Art of the Revolution: Festivals and Celebrations in Russia 1918-1933*.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 NATION-STATE BUILDING AND STATE SYMBOL: REVIVAL OR INVENTION OF HISTORY IN UZBEKISTAN

Keunsik J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breakdown of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ccomplishing politico-economic transformation and nation-state building. The leading group of Uzbekistan is collecting the source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is 'inventing' the tradition of new state. National flag, national anthem, state emblem have been changed. Monuments and symbols in urban and rural area have been displaced or constructed. It is a big burden for political elite groups because they not only have to find the national elements, but also have to take off the traces of Russian rule. There are some obstacles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because the ruling group came from the communist party under the soviet system and the multinational structure of this country.

One of the most peculiar trends is that the contents of formal symbols have changed from Russian to Uzbekian elements, but the arrangement of monuments have not changed. Such symbolic politics reflects the dual faces of the nation state building process. It is more easy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than to get the national legitimacy for power bloc.

